

한가위 풍년 기원하며, 興으로 만끽하는 가을 정취

9월 광주공연마루에서 펼쳐지는 광주상설공연 라인업

전주문화재단 초청공연 등 추석 특별공연 '다채' '가을' 주제 따뜻한 감성 담은 시립예술단 무대도

광주예술의전당이 9월 한가위를 맞이해 온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광주상설공연'을 마련했다.

9월 광주공연마루에서 펼쳐지며 추석연휴에는 한가위 특별공연이 기다리고 있다.

추석 연휴인 16-17일에는 한가위 특별공연이 마련됐다.

16일에는 전주한옥마을 상설공연에서 활동하는 전주문화재단이 '오만방자 전라감사 길들이기' 공연을 선보인다. 전주에 새로 부임한 오만방자 전라감사가 첫눈에 반한 계절과 풍류를 읊으며 삶과 행복을 깨닫는 내용이다. 우리네 소리 '판소리'에 현대적 색채의 뮤지컬을 더해 전통과 현대의 결합을 맞출 수 있다.

이어 17일에는 우리시대 국악인 중 가장 대중적이고 활발하게 활동하는 소리꾼 남상일을 중심으로 창단된 남상일아트컴퍼니의 브랜드 공연 '남상일과 놀다(Show)'가

가다리고 있다. 재치있는 입담과 소리로 가족들이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한다.

매주 일요일 무대에 오르는 작품은 예술단체 예약의 '이상한 나라의 꼭두'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전통 꼭두문화를 결합해 각색한 작품으로, 인간 다양성에 대해 다룬다. 이 작품은 부모(어른)를 이해하지 못하는 소녀가 다양한 성격 가진 꼭두를 만나며 어른을 이해하며 마음이 성숙해지는 과정을 그린다. 신선하고 매력적인 공연은 관객들에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가을'을 주제로 한 시립예술단 무대도 다채롭다.

7일에는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가을의 선율을 담아서' 공연이 가을의 시작을 알린다. '가을길, 한가위 밝은 달', '문어의 꿈' 등 따뜻한 감성을 담은 곡들로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한다.



전주문화재단 '오만방자 전라감사 길들이기' 공연

시립창극단은 14일 '중추가절(仲秋佳節)'을 주제로 한 전통 창극 무대를 펼쳐낸다. '달맞이, 풍년경사'와 같은 남도민요로 한가위의 풍년을 기원하며, 심청이의 아버지에게 대한 효심을 엿볼 수 있는 단란 창극 '가을가' 등 예향 광주의 풍성한 흥을 느낄 수 있는 무대를 준비했다.

21일에는 시립발레단의 '해설이 있는 발레' 무대가 펼쳐지며 9월 마지막 토요일 상설공

연으로는 28일 시립국악관현악단이 '아름다운 인생'을 주제로 관현악합주곡 및 조선시대 궁중무용 '춘앵전' 등 무대로 풍요로운 가을 분위기를 선물한다.

2024 광주상설공연은 오는 12월22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5시에 열린다. 모든 좌석은 무료로 사전 예매가 필요하다. 자세한 내용은 티켓링크 또는 광주예술의전당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명진 기자



소리꾼 남상일



예술단체 예약 '이상한 나라의 꼭두' 공연

넓은 장충의 총구, 시대를 관통하다

오는 28-29일 ACC 초이스 연극 '뽕야'

모두에게 잊혀진 '넓은 장충 한 자루'의 시선에서 바라본 우리의 현대사 이야기가 연극으로 찾아온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오는 28-29일 ACC 예술극장 극장2에서 우수공연 초청 프로그램인 'ACC 초이스' 공연으로 연극 '뽕야'를 선보인다.

'뽕야'는 역사를 '씨먹음' 궁리만 하던 드라마 작가가 역사를 '관통한' 장충을 만나면서 벌어진 일들을 다룬 작품이다. 1945년에 만들어진 99식 장충 한 자루가 주인공으로, 그의 파란만장한 삶을 통해 한국 현대사를 이야기한다.

김은성 작가가 집필하고 김태형 감독이 연출한 이 작품은 2022년 창작산실 '올해의 신작'으로 초연했다.

이어 2023 한국연극 베스트7 선정과 제1회 K-시어터 어워드 대상을 수상하며 화제를 모았다.



연극 '뽕야' 공연 모습

'뽕야'는 오는 28일 오후 8시와 29일 오후 2시에 공연하며 관람권은 R석 6만6천원, S석 4만4천원이다. 관람권은 ACC재단 누리집에서 예매할 수 있다.

한편 ACC재단에서 기획한 'ACC 초이스'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정체성 및 계기성에 적합한 우수 공연을 발굴해 초청하는 대중화 프로그램이다. /최명진 기자

“아름다운 아시아의 춤, 온라인으로 즐겨요~”

ACC·예술의전당 공동기획 '아시아스크린댄스'

아름답고 화려한 아시아 춤 한데 모은 영상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상영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과 예술의전당(SAC)이 손잡고 오는 30일까지 SAC 공연 영상 플랫폼 '디지털 스테이지(digital.sac.or.kr)'를 통해 아시아의 춤을 소개한다.

이번 행사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두 북부문화예술기관의 전문성을 살려 아시아 문화예술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문화예술 콘텐츠 체험의 폭을 넓히고자 기획됐다.

이는 ACC의 국제협력 네트워크와 예술의전당의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각 기관의 강점을 활용한 모범적인 협력 사례로 평가 받고 있다.

이번 협업으로 ACC는 '디지털 스테이지'를 통해 지난해 많은 사랑을 받았던 6개국 7편의 '아시아스크린댄스' 특별 영상을 공개

한다. 이는 오는 10월4-6일 ACC 일원에서 개최되는 '2024 아시아스크린댄스' 본 행사에 앞선 사전 행사다.

상영작은 ▲싱가포르 발레, 날기 ▲말레이시아 궁중무용, 가믈란 춤과 현대무용, 코퍼스 ▲스리랑카 건국 설화, 비자야 왕자의 도작 ▲인도네시아 현대무용, 새로운 삶 ▲미얀마 전통 민속춤 ▲캄보디아 전통춤과 현대무용의 점목, 쌀이다.

ACC는 아시아 공동의 노력과 연대로 아시아의 다양한 무용을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2011년 아시아무용커뮤니티를 조직했다.

이 커뮤니티는 아시아 전역에서 볼 수 있는 한국의 전통 '두레'와 같은 상호부조와 협동 공동체로 현재 동남아시아 10개국, 남아시아 3개국에 참여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가믈란 춤

'디지털 스테이지'는 예술의전당이 지난해 12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한 공연 영상 전문 플랫폼으로 등록 회원 수 5만5천명을 기록하며 순항 중이다. 세계적인 연주자인 조성진, 임윤찬의 공연 실황을 단독으로 만나 볼 수 있으며, 연극 '오셀로', 발레 '지젤' 등 이야기가 있는 콘텐츠로도 꾸준한 사랑받고 있다. 또한 실시간 라이브 중계 서비스를 제공해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인다. /최명진 기자

Tree of life 3-3 | 90x120cm | Pigment print | 2010

2024 Art Bank '예술을 선물합니다'

2024. 9. 27. (금) - 10. 6. (일) | 광주 동구 ACC디자인호텔 1층 갤러리 작품판매전

'자연에서 포착한 신비로운 생명'과 '초월적 에너지'를 빛으로 표현한 사진작가

생명나무는 겨울과 봄 어디쯤에서 만난 갈나무에서 시작되었다. 겨울의 혹독한 추위에 바짝 마른 나무 가지 끝에서 언뜻 초록이 보였다. '그 때 나는 정말 보았던 것일까?' 내가 본 것이 무엇이었든 간에 죽은 듯 말라버린 그 가지는 생명의 싹을 품고 있었을 것이다. 지난한 겨울을 나는 모든 나무들이 그러하듯이, 그 생명력은 신명하게 보이지 않더라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어디 그 뿐이랴! 일종의 각성이 있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세계에 대한 각성.

보이지 않지만 그것들은 분명 존재하며, 눈에 보이는 세계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상응한다. 나는 그것을 작품으로 표현하고 싶었다. 마른 나무가지가 품고 있는 생명력을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하다가 우연히 빛을 사용하게 되었다. 빛은 생명력을 표현하는데 굉장히 좋은 매체였다. 게다가 빛의 순고함은 나무의 신령함만큼이나 인류의 보편적인 원형이기도 하다.

나무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잇는 관문이자 일종의 균열이다. 빛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교류를 상징한다. 생명나무는 그 자체로 두 세계간의 상응을 표징하는 셈이다. 현대 산업사회는 굉장히 자극이 많다. 근원적인 것을 잊게 만들 정도로. 나는 작품을 통해 자연의 생명력과 우리 안에 내재된 근원적인 세계가 맞닿는 지점을 만들고 싶었다. 단순히 자연과의 교감에 그치지보다 우리의 삶과 역사에 개입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파장을 환기하기 바란다.

LUCA 34 | 120x95cm | C-print | 2021

Tree of life 6-2-5 | 15x120cm | C-print | 2017

이 정 록 작가

개인전 38회 (서울, 부산, 광주, 대구, 상하이, 뉴욕, 런던 등)

단체전 200여회

헝가리, 벨기에, 인도, 영국, 타이완, 중국(난징, 베이징, 따리고성, 운남성, 칭주), 미국, 싱가포르, 러시아, 일본, 터키, 미국(뉴욕), 한국(서울, 광주, 대구, 부산, 인천, 제주, 전남(담양, 옥과) 등)

작품소장
고은사진미술관(부산),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과천), 광주시립미술관(광주), 대림미술관(서울), 아트스페이스(경주), 일민미술관(서울), 제주도립미술관(제주), 전남도립미술관(광양)

| 주최 | **광주매일신문·광주매일 TV** | 문의 | 광주매일신문 062) 650-2079